

보령 녹도 인공어초 폐기물 수거 사업 완료

저비용 고효율의 사업추진으로 해양환경 개선 기대

한 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12일 까지 51일간, 충청남도 보령시 관할 녹도 주변해역 7,500ha의 해양폐기물(폐그물 등) 233.46톤을 수거하였다.

이번 사업은 녹도 주변해역 수산 동·식물의 서식지 및 산란장 등에서 발생한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침하된 해양폐기물을 수거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지속적인 어업생산성의 향상을 도모 목적으로 추진되었다.

당초 폐그물, 페어구 등 219톤을 수거하기로 하였으나 계획대비 106%, 14.46톤을 초과 달성하였으며,



수거된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였다.

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량이 작은 폐기물은 끝개를 이용하고 중량이 큰 폐기물은 브이를 연결하여 수거한다. 수거된 폐기물은 정화선의 윈치 및 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한 다음 운반, 하역, 위탁처리 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.

이를 위해 협회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 및 정화선 2척, 예인선 1척, 크레인부선 1척 등의 장비를 확보하고,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보안 관리와 민원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진행하였다.

협회, 어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

업무프로세스 개선과 효율적인 어항관리 가능해져



한 국어촌어항협회는 6월부터 국가 어항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어항정화 및 연안정화 관리 업무를 온라인화 하는 “어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

(<http://fishingport.or.kr/>)”을 정상운영하고 있다.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및 관리주체(정부)의 효율적인 어항관리가 가능해졌으며,

DB정보를 이해관계자와 공유·모니터링 및 일반 국민에게도 전파할 수 있게 되어 투명행정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.

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어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은 ‘모니터링 채널 및 온라인 설문조사’를 상설화하여 어항시설 안전점검과 어항 및 연안수역 정화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체계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. 이로써 얻게 된 효과는 다음과 같다. 첫째, 사업의 관리주체인 정부와 이용자(어업인, 일선 수협)의 만족도 측정 및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. 둘째, 어항관리주체와 어항이용자에 대한 상호 활동적인 인터넷 기반 고객관계관리(e-CRM)가 실현가능해졌다. 셋째, 안전점검의 효율성 및 적시성 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.